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5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가계대출 금리 뛰자, 정책 대출로 몰려
동아일보 https://zrr.kr/43LsVT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12월 신규 판매액은 2조351억 원에 달하며, 2023년 11월(3조688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의 저금리 매력이 커진 영향

하나금융, KPI에 생산적 금융 가점 준다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0me6r

하나금융그룹은 인사평가의 근거가 되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관련 가점 항목을 신설
정부 정책에 맞춰 그룹의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

카카오뱅크, 결제·캐피탈사 M&A 검토
뉴스핌 https://zrr.kr/hvkISf

카카오뱅크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시사
가계대출 규제로 국내 은행업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비은행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

"1km 내 통합도 예외 없다" … 금융위, 은행 점포 폐쇄 절차 전면 강화
뉴데일리 https://zrr.kr/kUmv5K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전면 손질
반경 1km 이내 점포 통·폐합도 예외 없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 점포 폐쇄 시에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하는 등 점포 폐쇄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

삼전 시총 1000조 부자들도 국장으로
매일경제 https://zrr.kr/uCfFZg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자산가 고객들의 국내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2조5296억원에서 올해 1월 18조8666억원으로 급증
국내 증시 활황, 상법 개정,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추진 등 정책까지 뒷받침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

삼전도 2배 투자 길 열린다..."거래 활성화 속 단기 투기 우려"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cnM6l0

국내에서도 특정 대형주에 대해 2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길이 열릴 전망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출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2분기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주를 기초로 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

원금 못 찾는데…보험 계약 35%, 3년내 해지
한국경제 https://zrr.kr/XF6RDI

국내 보험회사의 무·저해지 보험 3년(37회차) 유지율은 지난해 6월 말 64.9%(단순 평균 기준)로, 1/3은 3년 이내 계약을 해지
일부 설계사,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계약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

신한라이프 '톤틴연금보험'·한화손보 '여성 건강보험 4.0', 1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국금융신문 https://zrr.kr/Xl4u8z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이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
한화손해보험도 지난달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에 탑재된 '임신지원금'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1년을 획득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재추진 조짐에…업계 잇단 반발
머니투데이 https://zrr.kr/MR7Vuy

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를 겨냥한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핀테크 업계 반발
당국은 2단계 입법 이후 거래소가 얻을 공공적 지위와 증권 ATS와의 규제 형평성 등이 이유, 가상자산·핀테크 업계는 증권과 가상자산의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대

두나무, 5년간 '바이버' 투자 확대…RWA 확장 노림수
이투데이 https://zrr.kr/NydHdc

두나무가 명품 중고 시계 거래 플랫폼 바이버에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
두나무는 바이버를 거점 삼아 실물자산 토큰화(RWA)로 사업 확장 방안을 모색 중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